

오전(1부, 노랑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1월 19일 (제122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추수 때까지

일본 지교회를 10년 만에 둘러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마치 1992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많은 신자들을 미혹한 것과 같은 일이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두고 일부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 '학교도 갈 것 없다, 회사도 가지 마라, 가정도 버리고 교회에 집중하라,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등등 이단의 전통수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성경을 넘어서지 마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알지 못한다고 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차례에 일어나나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지 아직 끝은 아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니 조심하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당부, 또 당부했다.

알곡이 있으면, 더욱이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참새 때가 몰려든다. 참새에 쪼이면 잘 익은 알곡도 순간 쪽정이가 되고 마는 법,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마귀에게 쪼아 먹히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했다.

요즘 참새는 허수아비 따위에 속지 않는다. 오히려 허수아비 위에서 쉰다. 거짓 선지자들,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예수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나름대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니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나간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깊이를 더하면, 믿음의 샘을 깊이 파면 유혹과 미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실한 열매를 맺어 농부를 기쁘게 하고, 천국을 향하여 유유히 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픈 추수감사절 메시지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운명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항상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랑의 절정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표현이다. 성경 전체에 누누이 강조하시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의지를 기록하고 있다.

목사님은 한 달여 만에 88체육관에서 진행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운명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절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

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마28:20).

나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공동운명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한 것처럼(갈4:19), 나 역시 여러분을 해산의 수고로 낳았기에 여러분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하며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을 예수라는 나무에서 분리시켜 말려 죽이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

이 곧 그들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아니오'가 없이 오직 '예'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곧 이달 말이면 추계산상집회가 있습니다. 기도원 식구들은 지금도 집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말라기서를 통해 십일조의 비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경제공동체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며, 저희는 아버지 것입니다.'(요17:9-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공동운명체,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팔은 곧 내입니다. 이 팔



KBS 아레나(구 88체육관) 수요일예배 광경
 한 달여 만에 88체육관에서 다시 진행된 수요일예배는 여전히 뜨겁고 은혜로웠다

하면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마른 장작으로 불에 던져질 뿐이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곧 포도나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그 지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엡5:23, 골1:18)?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공동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가족이요, 공동운명체이며 경제공동체입니다. 서로 때려야 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란 뜻입

하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

공동운명체는 삶과 죽음이 한 운명이기 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관계입니다. 나와 이시대 목사를 비롯한 교단의 목회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 직원들 모두 나와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요, 나의 성공

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썩어 무용지물이 되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내 팔은 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내가 명령하는 일을 하고,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나 함께 갑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지만 절로 과실을 맺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어 풍성히 먹고 남에게 베풀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운명체, 경제공동체가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추계산상집회

날짜: 2023년 11월 27일(월)~ 30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3:1~19)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하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거미줄이 생겼다고 거미줄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원인인 거미를 잡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인을 알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잘 가다가 믿음이 흔들려 쏟아놓은 탑을 순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고, 누군가의 말에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서 그것이 미혹이나 유혹이라 여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마귀의 꾀계에 절대 속지 말아라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는 남편인 아담을 꼬였습니다. 이때 아담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하와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 그럴 수 있다 해도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본인이니 '절대 안 돼!'라며 뿌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에덴에서 쫓겨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창 3:17~19).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10:36)고 경고하십니다. 가족이 죽일 만큼 원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자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 네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철산에 루살렘교회'를 '한국에루살렘교회'로 바꾸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그 목사님은, "이 목사, 무슨 한국에루살렘이야? 그냥 철산이라고 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구, 잘했네. 이 목사는 충분히 그렇게 되기도 남을 사람이지."라고 격려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와 의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마16:15)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말한 후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고, 하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천국열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고난을 받은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마16:22)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16:22)라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데, "그러세요?"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되레 베드로의 말에, "고맙다. 나를 걱정해줘서."라고 어깨를 토닥거리주셔야 인간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아예 동조하지 않으셨고, 수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쪽 같은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불의(不義)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불의와 타협하는 자에게 복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삼십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 명에 어인(御印)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측근이 타협을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당신을 참조할 거

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십 일만 참으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느브갓네살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심히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단3:15).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단3:16)라며 단호하게 타협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쪽 같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복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급파하사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22:2)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3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3절 즈음에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거나 아내와 의논했다는 대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

행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해서도, 누군가와 의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의논하면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오직 순종뿐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맞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느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2:5) 했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요2:7)고 하십니다. 그 말에 하인들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집주인은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누 집 잔치를 망칠 셈이나? 물을 내다 주라니." 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하마터면 썰렁해졌을 잔치집이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기적이 따라오고 우리 삶도 흥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절대 타협이나 협상이 없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 그리고 경험에 반(反)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깊이 의논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오직 '아멘'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후1:19).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놈은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역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쓰고 다가오기 때문에 혹하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거듭 당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감사할 것 천지다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있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집 앞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곧바로 녹색 신호로 바뀌어서 바로 지나갈 수 있었다. 그때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그다음에 내 마음에서 뜨겁한 생각이 들었다. 신호등이 빨리 바뀌어서 조금 빨리 가게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항상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는 눈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귀와 언제든지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입과 걷고 싶을 때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셨는데 평소에도 너무 감사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세상에는 감사할 일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나에게도 당연한 일상이라고 감사하지 못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일 수 있을 텐데... 사회복지운동가로 유명했던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 심한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으나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잃었다. 그럼에도 그는 장애인과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사회운동을 했던 분이다. 그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첫날은 그의 스승인 설리번 선생을 찾아가서 종일 수다를 떨며 이야기하고 싶고, 둘째 날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저녁에는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밤거리를 보고, 잠자기 전에 사흘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헬렌 켈러의 소원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작은 일상이다. 지금 건강한 우리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도 작은 어려움에 얼마나 한숨과 불평, 혹은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하면 얼마든지 지금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살전5:16~18)

인천교회 이하역 목사님이 어느 날 카톡을 보여주셨는데, 중학생인 외손녀가 보낸 글이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희 엄마를 낳아주셔서요. 엄마가 세상에 오셨기에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해요.” 참 마음이 짱하고 흐뭇한 글이었다.

어떤 이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환경과 조건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며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산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총회장 목사님의 집안 말씀으로 글을 맺는다. “감사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한다”

장영국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거룩과 경건’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 ‘거룩’이 옛 삶으로부터 분리되고 (separate), 세상과 다르게 살고(different),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distinct)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경건은 내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참된 신앙은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함께 성숙해야 한다.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바리새인의 뜻이 ‘구분된 자’(separate)다. 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도 빠짐없이 드렸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평가받는 집단이었다. 문제는 그들의 거룩이 겉치레에 불과했을 뿐, 그들의 내면은 전혀 경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타하셨던 것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에서 보면 흰색이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가 썩어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의 거룩이 참다운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해야 한다. 외적인 거룩이 내적인 경건함과 일치해야 하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는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다. 기도의 대가(大家)로 알려진 조지 물러가 경건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10대에 부모님의 돈을 상속적으로 훔쳤고, 청년 시절에는 술, 여자, 노름 등을 즐기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던 어느 날, 물러는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회심하게 되고, 그 후 보육원을 세워 30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기로 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놀라운 것은 물러가 기도하면 어김없이 이름 모를 후원자가 나타나 고아들을 부족함 없이 돌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러는 이렇게 간증하곤 했다.

“한 시간 기도 후에 네 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다섯 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써 우리의 내면을 채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보자. **이정금 전도사**

:: 교단소식 ::

지금은 성령시대!

지난 11일 토요일,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에서 이시대 목사님을 초청하여 1일 성령집회를 열었다. ‘성령세례와 성령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 잔치는 성령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성령은 왜 받아야 할까?’ 목사님은 먼저 이 질문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고후13:5), 영적 은사를 받고(고전12:9),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고전2:10)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롬8:27), 내 삶을 바른길로 이끌 수 있다’며 목사님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며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7:37)는 말씀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셋째,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만(행2:38)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록한 성경의 사건들을 소개하시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 문도가 기도할 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설명해주셨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회복을 원하는 청년들이 단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 순간 모두 성령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금은 성령시대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성령은 진열품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연장이요 무기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

송현해 생도



:: 생명의 말씀 ::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섬김과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다 간 노(老) 수도사 브라더 로렌스의 일화다. 그는 어린 10대 시절 전쟁에 출전했다가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나이 오십이 넘어 카르멜 수도원의 주방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주방 일에 임했다.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면서 부엌을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음식을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항상 감사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소중한 일이 된다’고 믿은 그는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접시를 닦고, 부엌을 청소하는 일들이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방 일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수도사들은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를 수도원 원장 후보로까지 추천했다. 평신도 수도사는 원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도 말이다. 결국 그는 수도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수도원 원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교육

도 전혀 받지 못했고, 불구였으나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힘든 부엌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결과였다.

어느 날 브라더 로렌스는 국왕 루이 12세의 방문을 받았다. 국왕은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도, 불행하게 할 사람도 없다. 내가 불행하다 여기면 불행할 것이고, 행복하다 여기면 행복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 지금 삶이 눈물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석한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처럼 해석만 잘하면 눈물골짜기가 변하여 축복과 기쁨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자. 그리하면 행복이 꽃을 들고 찾아올 것이다.

임택함 목사

:: 성도간증 ::

:: 글쓴이 주님 ::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중심교회에 다니시던 이웃의 권사님께서 예수중심교회에 가보자 하셔서,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빠를 모시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저는 집에 누워 쉬고 있었는데, “미혜야, 아빠 걷는다!” 하시면서 아빠가 걸어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걸음을 못 걸으셔서 남동생이 부축하여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가셨는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과 88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십일조와 신앙생활에 철저하셨고 우리들의 예배에도 단호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당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있었던 교육관에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기 1, 2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지금의 남편과 2009년에 결혼했는데,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 건강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말입니

다. 젊고 건강했지만 시험관 시술을 권유 받고 남들은 서너 번도 하기 힘들다는 시술을 10년 동안 아홉 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웬지 제 인생이 뺨찌라지가 된 것만 같았고,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졌으며 남편과의 갈등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정말 딱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생각으로 열 번째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엄마가 문산교회에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해오셨는데 작정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목사님께 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시술을 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검사하기 전날이었는데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아기를 선물로 주시는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 이번에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홉 번의 시술에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작정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이번에는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었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졸업장과 함께 졸업선물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받았는데 뜯어보니 아주 크고 빨강고 탐스러운 복숭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를 들어보니 뒷면이 움푹 파여 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불러 선물을 바꿔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받은 상자를 열어보니 전의 복숭아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주 풋풋하고 동그랗고 온전하게 예쁜 복숭아

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꿈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흠이 있고 안 좋은 것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심한 임신성 소양증 산모는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도로 저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질환을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신으로 약을 못 먹으니 통증이 심했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너무 가려워서 밤새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배 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앞두고 저는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88체육관이었는데 이초석 목사님께서 단에서 내려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로 오셨습니다. 임신한 저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동안 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친한 언니들과 직장동료, 동네 지인분들에게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늘 곁에서 저를 도우셨고, 저와 함께 하였고, 저의 소원인 건강한 아이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 살았던 세월을 회개했고,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문산교회에서 집사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셨던 많은 문산교회 성도님들과 담임목사님, 꿈속에서도 저에게 다가와 안수기도해주셨던 사랑하는 이초석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문산예수중심교회 서미혜 성도

God only knows!

‘God only knows(갓 온리 노우즈)’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뜻이다. 진단 불명, 진단 불능일 때 진료 차트에 G.O.K.라 기록한다. 하나님만이 알고 의학으로는 진단 불능일 때 기록하는 병명이다.

나는 이름 모를 병으로 1985년 2월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했었다. 의사들이 병명을 찾지 못하고 신경성이라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라고 했다. 의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G.O.K.라 기록하고 신경성이라 말한다. 의사가 신경성이라 하므로 나는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긴 병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었다.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봐도 죽을 수밖에 없어 살기 위하여 그렇게 욕하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다(출20:3). 하나님 외에 거짓 신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시16:4). 거짓 신을 섬길수록 괴로움의 질병과 가난을 더한다는 말씀이다. 거짓 신을 섬기면 괴로움이 더해지나 하나님을 섬기면 있는 병도 고쳐주신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시103:3).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나의 병을 고치시는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체질을 아시므로 병을 치료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간질병, 중풍병, 정신질환, 손 마른 병, 혈류증, 문둥병, 앓은뱅이, 귀머거리, 병어리, 소경, 허리 꼬부라진 병, 열병 등, 수없는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욕했던 예수를 믿으니 죽음의 병에서 살려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38년 동안 병원과 담뱃고 살았다. 수없는 질병이 찾아왔으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들은 고칠 방법이 없어 신경성 두통, 신경성 복통, 신경성 관절염이라 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긴 병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고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God only knows를 신경성이라 말한다.

이승호 목사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노량진 교육관)
유튜브 생방송
문의 02. 533. 9191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Good News

처음 가는 길은 물어보고 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체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험자의 말을 듣는 것은 지혜 중의 지혜

입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늪은 낙타를 타고, 전쟁터에서는 백전노장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선배를 쫓대라고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듣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성과 상상으로 만든 종교는 구원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들이 제시하는 모든 길은 끊긴 길이요, 막힌 길들입니다. 영똥한 곳에서 방황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영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바른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